

**한국인 운영자에 의해 개설된  
최대 아동·청소년음란물 판매 다크웹 사이트의  
국제공조사건 수사결과,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유통 및 소지한 38개국에서 검거된 이용자 337명 중  
223명이 한국인 이용자임이 밝혀졌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2019. 10. 16. 비트코인을 받고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 유통한 최대 규모의 다크웹 사이트를 해외 32개국과 공조하여 수사하고,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 및 사용자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1. 경과**

날짜	경과	세부내용
2015년 7월	다크웹 사이트 개설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의 자택에 서버를 갖춰놓고 'Welcome To Video' 사이트를 통해 아동음란물 동영상 22만여 건을 유통함.</li> <li>· 2년 8개월간 불법 사이트를 운영함.</li> <li>· 사이트는 이용자가 120만여 명, 유료회원만 4073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대부분 이용자가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짐.</li> <li>· 유료회원으로부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고 아동음란물을 판매하여 415비트코인(약 4억원)을 불법적으로 벌어들임.</li> </ul>
2018년 3월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검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9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이 해당 사이트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한국 경찰청에 알리면서 수사 착수됨.</li> <li>· 아동·청소년음란물 유통 및 판매 사이트 운영자 손모 씨(23세) 검거.</li> <li>·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li> </ul>
2019년 10월 16일	다크웹 사이트 이용자 검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경찰청은 운영자 검거 후, 각국에서 진행 중이던 사이트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사이트에 '홈페이지 개편 중(Rebuilding)'이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사이트가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해 옴.</li> <li>· 운영자 검거 이후 32개국의 사이트 이용자의 검거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최종수사결과 발표.</li> <li>· 검거가 이루어진 곳은 영국, 아일랜드, 미국, 한국, 독일,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체코공화국, 캐나다 등.</li> </ul>

**2. 논평**

2019년 10월 16일, 미국 법무부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유통 및 판매했던 최대 규모의 다크웹 사이트 공조수사의 최종수사결과를 발

표하였다. 2018년 3월,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가 한국인으로 밝혀져 검거된 후에도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며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유통 및 소지한 38개국의 이용자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고 진행한 결과, 검거된 337명의 이용자 중 223명이 한국인 이용자임이 밝혀졌다.

사이버경찰청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유통 및 판매하며 이익을 거둔 운영자와 이용자를 검거하기 위해 공조수사에 협력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유통 및 소지한 혐의로 검거된 이용자의 65%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것은 현 한국 사회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사회 인식과 분위기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미국 법무부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 법무부 홈페이지에 이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음란물 사용자들에 대한 기소 내용을 게시하였다. 사용자들의 연령은 20세부터 70세에 이르고 있었으며, 배포한 혐의로 18개월, 97개월, 121개월, 5년, 15년, 22년 등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것과 범죄 수익금은 몰수 추정되어 궁극적으로 불법 자금이 범죄 피해자에게 반환된다는 점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2018년 한국에서 검거된 사이트 운영자인 손씨(23세)는 겨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만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배포했다는 혐의만으로도 길게는 22년까지 형을 선고받은 미국에 비해 한국사회가 얼마나 아동·청소년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와 사용자들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고 허용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의 유통 및 판매가 비단 운영자나 이용자를 추적하기 어렵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인터넷 공간인 다크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에서부터 인터넷 사이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NS, 개인 방송 등에서도 불법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홍보글과 불법 성매매 업소 사이트들, 아동·청소년음란물 판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요구 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동안 십대여성인권센터를 비롯, 여러 단체들이 인터넷 상에서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유통 및 판매·소지, 성매수를 버젓이 제안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방어조치나 적극적 수사와 기소, 입법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나 한국 사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사회가 성적 착취를 통해 불법적 수익을 극대화시키며 배를 불러왔던 불법 음란 사이트들의 운영자들이나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상에서 안심하고 활개를 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경찰청은 32개국과 공조 수사하여 검거가 어렵다고 알려진 다크웹 사이

트도 이제 적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그러나 다크웹 사이트 뿐 아니라 우선 모든 이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 인터넷 사이트, SNS,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개인 방송부터 모니터링하고 수사하라. 그동안 접근할 수 있는 이는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는 불법 성매매 업소 사이트 및 아동·청소년음란물 유통 사이트를 신고해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조차 하지 않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왔던 사이버 경찰청 및 정부가 이러한 국제적으로 최대의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유통시킬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해 왔던 것이다.

한국은 UN 아동인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권고를 받은 바 있으나, 여전히 아동·청소년의 매매와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와 같은 성착취, 음란물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광범위한 관계자들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과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상의 아동·청소년의 매매와 성착취 문제가 심각한 한국 사회가 가장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이 사안을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인식, 우선순위에 두고 IT 기술전문가를 포함한 독립적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법제도를 만들어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거된 한국인 223명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할 것이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끝>